

21세기와 정보시스템 전환 과제

조 상 치

(에스에스통상 고문)

이제부터 3년정도 지나면 21세기를 맞게되는 중대한 변화 기점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접 주관하에 21세기 정보화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세로 정보화를 대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관은 물론 기업체, 학교 및 가정에 까지 컴퓨터화가 진전되어 컴퓨터를 떠나서는 모든 사회가 크게 영향을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일간신문에서는 사회면 Top기사로 「미·영 등 선진 5개국 조사에서 “기업체간부들 情報化”시대」라는 제하에 과로사에 이은 새로운 현대병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인트라넷 및 E-Mail 등으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은 많은 조심과 이에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하겠다.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컴퓨터활용은 초기에는 컴퓨터

의 용량, 기능제한 등으로 사용글자 제한을 많이 받아 코드화 내지는 약자화하여 프로그래밍을 하였다. 특히 온라인시스템 개발에서는 데이터통신의 속도가 수백Bits로서 에러율도 높아서 가급적 적은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시스템설계에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현재는 수Maga Bits까지 가능하게 초고속화되어 있으며 에러도 거의 제거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대의 컴퓨터로는 가급적 정상적인 문자를 활용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21세기를 몇년밖에 앞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모든 컴퓨터활용기관에 해당되는 커다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즉 1960년대에 시스템개발사에서 부터 년도표시를 2 charactor(××)화하였는바 2000년대에 가서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미 어느 은행에서 장기저축신규가입시에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에 미국의 전문기관 관계자가 조찬회겸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단순히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해 년도 Conversion에 필요한 비용만도 적은 기관은 천만 달러전후에서 큰 기관은 천오백만달러까지 필요하며 소요기간도 수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컴퓨터사용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안되고 있다. 서둘러서 대비하여야 할 중요사업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밖에도 1세기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다양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찾아 문제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데이터필은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5~10년정도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비한 세밀한 검토와 계획, 수정작업을 선행하여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금융산업의 정보화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기관과 기업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에서 시스템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도는 그 어느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시간과 인원, 장비를 전제로 계획, 설계, Conversion하여 새로운 21세기를 희망차고 안전하게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